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LIGHT IN THE LAKE
가제 : 호수의 빛
저자 : Sarah R. Baughman
출판사: Little, B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9년 9월 3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문학



* 뜻밖의 발견과 마법의 가능성, 과학의 아름다움, 희망의 세계로 초대하는 데뷔 소설

한 날 한 시에 함께 태어난 애디와 에이모스는 나뭇잎 같은 눈 색깔도, 바람이 휩 불고 지나간 것처럼 부스스한 머리카락 색깔도 꼭 빼 닮은 쌍둥이다. 거대한 산에 둘러싸인 마을에서 틈날 때마다 메이플 호수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보낸 즐거운 시간은 2개월 전, 푹 끊기고 말았다. 에이모스가 거대한 빙하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움직이는 주변 산에서 조용히 떨어져 나온 조각들만 달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곳, 메이플 호수의 저 깊은 바닥에서 발견된 날부터 엄마도, 아빠도 애디도 더 이상 호수 주변에 가지 않았다. 항상 함께 맞이하던 생일을 열두 번째부터 처음으로 혼자 맞이해야 하는 애디는 도저히 열어볼 수 없어서 침대 구석에 묻어둔 에이모스의 노트를 돌이 함께 태어난 날을 맞아 용기 내어 펼쳐 보기로 마음먹는다. 또박또박 반듯한 글씨로 에이모스가 정성 들여 기록한 내용은 애디가 결코 믿지 못했던 곳, 믿고 싶지 않았던 세계의 문을 열고 다시 메이플 호수로 향하게 한다.

호숫가에서 놀 때면 애디는 풍경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에이모스는 거의 매번 거울처럼 맑은 새파란 물 속에 뛰어들었다. 수면에 둥둥 떠서 잔잔한 물살에 몸을 맡긴 채 한참을 가만히 있곤 하던 에이모스는 어느 날부터 물 속에 신기한 생물체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물론 애디는 믿지 않았다. 훨씬 어릴 때부터 과학에 푹 빠져 살아온 애디는 동화 속이나 나올 법한 허무맹랑한 소리에 놀라거나 감탄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하지만 잠시 저러다 말거라 생각했던 에이모스는 몇 날 며칠을 끈질기게 애디를 설득할 정도로 메이플 호수에 새도, 물고기도 아닌 비늘이 있는 처음 보는 생물이 산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애디 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애디에게 꼭 한 번 같이 가서 보자고 부탁했다. 호수 바닥에 가라앉은 채로 발견되기 전, 에이모스가 건넌 노트는 거의 1년 가까이 호수에서 그 알 수 없는 생명체를 추적하고 관찰한 기록이었다. 끝까지 애디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같이 가서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후회가

되어 괴로운 마음에 에이모스가 떠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차마 그 노트를 펼쳐볼 수 없었던 애디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메이플 호수에 가야할 지도 모를 기회가 생기자, 마침내 그 기록을 읽어보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어차피 다시 호수에 가게 된다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에이모스가 그렇게 관심을 쏟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볼 수 있으리라.

애디가 또래 친구들보다 과학적인 재능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알아본 선생님은 곧 다가올 여름에 미시건 대학교 생물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메이플 호수에 머물며 연구 조사 활동을 벌이기로 했는데, 보조 연구원으로 한 번 참여해보라고 권유했다. 호수가 보기와는 달리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정말로 오염이 됐는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수질검사와 주변 환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과학자가 꿈인 애디의 입장에서는 에이모스의 비극적인 사고만 아니라면 뭘 듯이 기뻐할 만한 기회였다. 그러나 주저하던 애디는 에이모스의 노트를 읽은 후, 반드시 호수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쌍둥이만의 유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느낄 수 있었던 애디는 반짝이는 비늘 같은 것이 온 몸에 덮여 있다는 호수의 괴생물체에 관한 에이모스의 관찰 기록이 결코 허황되거나 과도한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구 팀에 합류한 애디는 수질 조사에 나선 과학자들을 도우면서 에이모스가 남긴 글을 단서로 신비한 생물을 존재를 몰래 추적한다. 과학자들 중 한 명이 아버지라 호숫가에 함께 따라온 타이라는 이름의 또래 친구의 도움을 받아 에이모스가 집어낸 구체적인 위치와 시간대를 정확히 지켜서 또 다른 탐구 활동에 나선 애디는 놀랍게도 모든 것이 에이모스가 말한 그대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란다. 정말로 메이플 호수에는 지금까지 과학계에서 한 번도 밝혀진 적 없는 희한한 생물이 살고 있을까? 만약 그런 생물이 존재한다면, 에이모스의 굳은 믿음처럼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 그런데 애디가 나름의 조사에 몰두한 사이, 과학자들의 수질 조사에서 그에 못지 않은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된다. 우려한 대로 메이플 호수는 오염이 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도 애디와 주민들에게는 믿기 힘든 일인데, 주된 오염원이 호수 주변에 위치한 낙농장이라는 것이다. 엄마아빠를 제외하고, 에이모스의 죽음이 애디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누구보다 이해해준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꼬마 때부터 함께 자란 사촌 리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낙농장도 문제를 일으킨 농장에 포함되어 있었다. 리자가 어린 송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몇 개월 후로 예정된 박람회에 나가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지 잘 아는 애디는 예비 과학자로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호수의 미래와 과학,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잔잔한 수면 아래 꿈틀대는 마법과 비밀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상실과 크나큰 슬픔을 과학과 경이로움이라는 비슷하고도 다른 렌즈로 그린 따뜻하고 흡입력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새라 보먼(Sarah Baughman)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다 현재 교육 컨설턴트 겸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 그린벨 칼리지와 미시건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3개국에서 영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다.

제목 : THE UNADOPTABLES

가제 : 환영받지 못 하는 아이들

저자 : Hana Tooke

출판사: Penguin Random House UK

발행일: 2020년

분량 : 300 페이지

장르 : 문학



- * pre-empt 영어(6-figures),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판권 계약(2 book deal)
- * 2019 바스 아동소설상(The Bath Children's Novel Award) 결승 진출작 - "진짜 가족을 찾으러 나선 아이들을 그린 놀랍고 매력적인 미스터리"

19세기 후반, 암스테르담의 한 고아원에서 만난 다섯 명의 친구가 뻔히 예정된 불행한 미래를 피해 아무 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용기 있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흥미로운 신작이 완성됐다.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를 아기 때 '작은 튜립 고아원'에 버려져 열두 살까지 이곳에서 생활한 밀로는 평소에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거나 사랑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던 원장이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아원을 몰래 빠져나가기로 결심한다. 처음에는 혼자 도망치려다 여태 함께 가족처럼 지낸 셈, 로타, 에그, 펜나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한 밀로는 네 친구들과 함께 생애 첫 여행, 혹은 도피 길에 오르기로 한다. 밀로와 아이들이 기댈 곳은 딱 한 곳, 오래 전 밀로가 고아원에 버려질 때 작은 관처럼 생긴 바구니 속에 함께 들어 있던 고양이 인형과 인형 안에 숨겨져 있던 주소와 유명한 이름이 전부다.

사실 그 고양이 인형은 일반적인 장난감이 아닌, 꼭두각시 인형극에 사용된 듯한 특별한 인형이었다. '꼭두각시 인형 제작자 브람'이라는, 유명한 인형 장인의 이름이 적힌 것도 그런 추측을 뒷받침했다. 고아원 원장 개스빅이 허구한날 '너 같은 애를 누가 입양 하겠니?'라고 쏘아대는 말을 최대한 흘려 들으며 잘 버텨온 밀로는 열세 살 생일이 될 때까지 정말로 양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원장이 자신을 팔아 넘길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돈만 밝히는 개스빅 원장 못지 않게 돈 말고는 아무 것도 개의치 않는 상인, 바스 로트만과 밀로를 비롯해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만한 고아 넷을 노예로 판다는 계약을 이미 체결해 둔 것이다. 하루 아침에 자신을 데려다 키울 양부모를 찾아낼 수는 없으니 방법은 하나였다. 생일이 되기 전에 달아나는 것이다.

셈, 로타, 에그, 펜나와 함께 몰래 고아원을 벗어난 밀로는 뽀뽀 얼어붙은 운하와 안개가 자욱한 골목골목을 지나 고양이 인형에 적힌 주소를 찾아간다. 힘들게 도착한 곳은 자그마한 풍차. 그런데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고 밀로가 아버지가 분명하다고 믿은 브람도 그곳에 없었다. 풍차 옆에 딸린 허름한 헛간에는 한 때 인형극이 열리던 곳임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많았지만 다 옛날 일인지 부연 먼지만 가득했다. 브람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아이들은 텅 비어 있는 집과 헛간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다시 고아원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한다. 주변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벌인 끝에, 밀로는 브람이 12년 전, 즉 밀로가 태어난 해에 당시 함께 살던 애나리에스라는 딸아이와 함께 풍차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애나리에스는 밀로의 언니일까? 왜 만들던 인형도 그대로 둔 채 다급히 달아나야 했을까? 밀로는 브람의 실종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풍차에 머물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아이들끼리 지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관청에서 당장 잡아갈 것이 분명하기에, 밀로는 브람이 돌아와서 자신들을 거두기로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트린다. 그러나 거짓말은 금방 들통날 위기에 처한다. 시계 만드는 이웃인 에다가 갑자기 브람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관청에서 입양 사실을 확인하러 담당자까지 나온 것이다! 브람이 집에 없다고 둘러대며 용감하게 대신 그 담당자와 만난 밀로는 아이를 입양하면 나라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다. 영리한 핑계로 한 달만 시간을 주면 수수료를 내기로 약속하고 담당자를 돌려보내는데 성공한 밀로는 적지 않은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하지만 밀로는 이번에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다. 브람이 만든 인형들로 열심히 연습해서 인형극을 열면, 돈도 벌고 소문을 들은 브람이 정말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밀로의 지휘대로 제각기 재능을 뽐내며 인형극 준비에 몰두한다. 마침내 첫 공연 날, 우려와 달리 인형극은 대성공을 거두고 이대로만 계속된다면 제법 많은 돈을 벌어서 수수료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지만 밀로는 브람이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실망한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터진다. 고아원을 탈출한 아이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개스빅 원장과 로트만이 브람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하지만 그대로 당하고 있을 아이들이 아니었다. 로타는 원장이 그동안 자신의 고아원에 살던 아이들을 데려간 양부모들의 수수료를 중간에서 몰래 훔쳤다는 사실이 낱알이 기록된 문서를 공개해 그가 얼마나 파렴치한인지 세상에 알린다. 궁지에 몰린 개스빅 원장은 물귀신 작전으로 로트만이 자신을 꼬드겨 고아들을 배에서 노예로 쓰기 위해 '사들이러' 했다고 밝힌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을 알고 본성을 드러낸 로트만이 아이들을 향해 날카로운 칼을 겨누는 순간, 밀로가 그토록 기다리던 브람이 마침내 나타난다. 아이들을 돈 벌 수단으로만 여기던 원장과 로트만을 드디어 몰아내고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났다는 생각이 벅차오른 밀로는 브람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밀로의 아버지가 아니며, 애나리에스가 외동딸이었는데 아이를 잃고 실의에 빠져 집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밀로를 버린 부모 혹은 가족이 왜 하필 브람이 만든 인형을 바구니에 같이 넣어두었을까? 그 가족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원장의 손아귀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다섯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할까? 밀로가 오랫동안 소망하던 '진짜 가족'은 절대 멀리 있지 않고, 가족이 반드시 혈연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을 그린 인상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하나 투크(Hana Tooke)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건너와서 바스에 살고 있다. 열두살부터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했고 플리머스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현재 특수교육 교사로 일하고 있다. 바스스파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글쓰기 과정을 마쳤다.